

### 한미 공군, 공대공·공대지 무장 실사격훈련

한미 공군이 F-35A, F-15K 등 항공기 40여 대를 동원한 연합 공대공·공대지 무장 실사격훈련으로 '2024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의 대미를 장식했다.

공군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적기 발사한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고, 적 화력 도발원점을 정밀타격하는 실사격·폭격 훈련을 했다.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공대공미사일 AIM-7M 스펙로·AIM-9 사이드와인더·AIM-120B 암람, 공대지미사일 AGM-84H 슬램ER·AGM-65 매버릭, 공대지 폭탄 GBU-31·38(JDAM), SPICE-2000 등을 실사격했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이뤄진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F-15K·KF-16·F-16·FA-50·F-4E 전투기, 미 7공군 A-10 공격기와 F-16 등이 동원됐다.//

###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에어쇼 2024 참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싱가포르 에어쇼 2024'의 모든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블랙이글스는 2월 24~2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열린 퍼블릭데이 행사에서 준비한 공중기동 프로그램을 완벽히 수행했다.

일반 관객까지 입장할 수 있는 퍼블릭데이를 맞아 행사장에서 블랙이글스가 공



연하는 약 20분 동안 싱가포르 하늘은 오로지 그들이 독차지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블랙이글스를 소개하는 방송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 블랙이글스, 필리핀 에어쇼 & 한·필리핀 공군 우정비행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함께 창공을 수놓으며 아름다운 공중기동으로 양국 수교 75주년을 축하했다. 1949년 3월 3일 우리와 수교한 필리핀은 6·25전쟁 때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다.

3월 3일(현지시간)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는 필리핀 공군과 우정비행을 선보였다. 형제 격인 블랙이글스의 T-50B 8대와 필리핀의 FA-50PH 4대가 편대를 이뤄 비행해 의미를 더했다.

필리핀은 2014년에 국산 항공기인 FA-



50PH 구매 계약을 체결해 현재 12대를 운용하고 있다.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전투에 투입돼 맹활약을 펼쳐 자국에서 '게임체 인저'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 공군 학군단, 내년부터 4개 대학에 추가 창설

내년 경운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이 창설된다.

공군은 2월 7일 공군 본부에서 4개 대학교와 '공군 장교학군단 신설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권영민(소장·진)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과 각 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4개 대학이 추가되며 공군 학군단은 총 11개가 됐다. 4개 대학교 학군단은 2025년 만들어진다.



올해 대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첫 학군사관후보생을 선발한다.

후보생들은 3학년이 되는 내년 2월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2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 3훈비 236비행교육대대, 10만시간 무사고 비행

국산 항공기 KT-1 훈련기로 정예 조종사 육성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3훈련비행단(3훈비) 236비행교육대대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금자탑을 세웠다. 3훈비는 3월 26일 기지 강당에서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시상식은 이 같은 무사고 비행 기록 수립을 축하하고,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온 장병·군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열렸다.//



###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지역 에어쇼로 탈바꿈

모형항공기, 물로켓 등 초·중·고등학생 대상 경연대회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가 올해부터 확 달라진다.

F-15K·FA-50·F-16·C-130 등 공군 주요 항공기 전시부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의 화려한 공연까지, 강력한 공군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에어쇼' 형태의 행사로 변모한 것.공군은 4월 20일 대구기지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전국 권역 5개 공군 부대(대구, 수원, 원주, 광주, 충주)에서 '스페이스 챌린지

2024'를 부대 개방행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스페이스 챌린지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군 군악·의장대 공연 △전투탐색구조 시범 △수송기 탑승 체험 △항공기 및 무장 전시 등 공군만이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된다.

이 밖에 핸디 고무동력기 만들기·날리기, 에어로켓 체험, 비행 시뮬레이터, 비행 슈팅 게임 등 항공우주 관련 프로그램과 에어바운스, 페이스 페인팅 등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 5비 251대대, 36년 무사고 비행

우리 공군 주력 수송기 C-130 허큘리스를 운용하는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251공수비행대대가 1월 10일 '36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달성했다.

251대대는 1991년 걸프전 참전부터 2023년 프라미스 작전까지 세계평화와 국제 분쟁 해소에 일조해 왔다.

251대대는 총 9만 7038시간(비행거리 4942만4406km) 동안 연합훈련과 물자·병력 공수, 인도주의적 국제평화활동, 해외 공수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록을 이뤄냈다.



251대대는 공군에 C-130이 도입되면서 1988년 1월 11일 창설됐고, 11일 36주년을 맞는다.

부대 창설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항공작전을 펼쳤다는 얘기도.//

### 11전비 110전투비행대대, 11만 시간 무사고 비행

1월 17일 공군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가 11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날 임준형 소령과 조찬용 대위가 조종간을 잡은 F-15K가 비행을 무사히 마치며 도달한 이 기록은 110대대가 F-4D 항공기를 운용하던 1992년 12월 10일부터 F-15K로 기종 전환을 한 현재까지 31년 1개월에 걸쳐 이룩한 성과다.

대대는 1966년 수원기지에서 F-5 대대로 창설, 1972년 대구기지로 이동해 2007년까지 F-4D 기종을 운용했다. 2010년



F-15K 대대로 전환 창설됐고, 단 한 건의 비행사고 없이 주요 작전과 각종 연합·합동훈련에서 활약하고 있다.//

###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 '24년도 전반기 이사회를 2월 28일 오성회관에서 집행부 및 친목단체장, 위촉이사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정기총회에 의안으로 회칙개정(안)과 연회비 인상 등 내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타 정회원 확대 및 전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였다. 그리고 대구지부 산하 보라매장학재단(이사장 권태정)은 제1회 장학기금 모금 바자회를 개최하여 자체 제작한 독수리 문양의 목걸이와 메달, 기증받은 물품판매 대금으로 100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지역내 공군부대 현역부사관 중 야간대학교 재학중인 모범생을 추천받고, 회원 자녀중에서도 선발한 장학생 2명에게 정



기총회시 장학금 7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6·25참전전우회원과 고령 및 취약층 회원을 선정하여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 및 복지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부는 재단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독수리 문양의 목걸이 메달을 제작 판매중이며 각 지부(회) 및 개인별 주문을 기대하고 있다.//

### 사천지회

사천지회(박갑용)는 3월 16일 약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업무결산, 안건심의, 2024년도 사업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 지회장은 “회원 배가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정회원을 많이 확보하여 본 회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상의 영광은 문금천 원로와 박성국회원에게 중앙회장의 공로상을 전수했다.//



### 의왕지회

의왕지회는 2월 8일 시내 음식점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신입 임원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며 신입회장으로 이석우회원을 선출했다. 신입 이 회장은 “의왕시 지회를 화목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우회를 만들고 회원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평택지회

평택지회(지회장 양관현)는 1월 25일 정기총회를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행사는 회무보고, 2023년도 결산,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임원선출을 하였다. 임원은 양 지회장은 연임되었고 이 중혁 부회장과 김근찬 사무국장이 선임되어 2년 임기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좌중언)는 1월 30일 지부 사무실에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공군전우회’라는 슬로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지부의 회원 증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4년도 사업계획과 임원개선에 따른 정기총회 개최에 대해 협의했다.//



### 강릉지회

강릉지회(지회장 황용기)은 1월 18일 정기 월례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에서 회원 상호 일상안부와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으며, 본 지회 소속 최송원(전 지회장)회원의 현대계간문학 시담집에 실린 시 낭송으로 뜻 깊은 시간을 갖고 월례회 및 신년인사회를 마무리 했다.//



### 성남지회

성남지회(지회장 박문석)는 3월 정기모임을 3월22일 시내 음식점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규회원 5명이 참석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박 지회장은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에 전우님을 만나 반갑다”며 “올 한해도 건강하고 분기별 모임을 지속해 성남지회가 타의 모범이 되었으



### 양평지회

양평지회(회장 김수영)는 2월 23일 양평읍 소재 음식점에서 지회원 및 지난해 12월 부임한 용문산 관제부대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와 인근부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환담이 이루어졌다.//



### 필라델피아 지회

필라델피아 지회는 1월 31일 지회장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장동건 이임 지회장은 서장석 신입 지회장에게 공군전우회기를 전달하고 필라공군전우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 지회장은 “전임 지회장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토대로 지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워싱턴지회

워싱턴지회는 지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월 27일 신년하례식 및 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한수웅 지회장은 “지회 활성화 및 지회원들간의 친목도모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익현 공군전우회 부회장, LIG넥스원 사장에 취임

신익현(예 준장, 공사 32기) 공군전우회 부회장이 3월 25일부로 (주)LIG넥스원 사장으로 취임했다.

신 부회장은 현역시절 8전비 단장과 합참 전략기획차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전역 후 지난 1월 1일 ㈜LIG 넥스원 사장으로 선임되어 3월 25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취임했다.//



### 공군학사장교회, 주한미군전우회와 MOU체결 및 정기총회



사단법인 공군학사장교회는 2월 28일 공군호텔에서 주한미군전우회와 상호 교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 장병과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연결하고, 한미동맹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201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설립된 단체다.

(사) 공군학사장교회 서영득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주한미군전우회와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며

우수한 공군학사장교 출신 회원들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한미관계의 돈독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3월 29일 공군호텔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5기 재무제표 및 26기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회장 기념사, 공군 참모총장 축사 후,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과 국회의원 배준영 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공군ROTC장교회, 학군사관 통합임관식 참석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석찬) 회장단 4명은 2월 28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진행된 학군사관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회장단 일행은 공군 참모총장과 공군교육사령관 및 공군학군단장 등 공군 관계자들을 만나고 리셉션 행사, 계급장 수여 등의 순서에 참여하여 임관하는 학군 51기 142명의 공군소위들을 격려해 주었다.//



### 공군인터넷전우회, 공군3여단에 체력단련실 개소

문오선(준장·오른쪽 둘째) 공군3미사일방어여단장과 이병권(왼쪽 둘째) 공군인터넷전우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피트니스센터’가 2월 26일 공군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8985부대에 문을 열었다.

시설은 공군전우회 산하 단체인 공군인터넷전우회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인터넷전우회는 지난해 6월 공군 격오지 부대 장병의 체력단련 여건 개선을 위해 방공관제사에 약 10억 원을 기부했

다. 시설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전문 체육시설 못지않은 운동기구로 채워졌다.//



###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필리핀지회 방문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회장 김진홍)는 2024년도 정기 총회를 1월 20일 계룡스파텔에서 회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행사는 회무보고, 감사보고, 회칙개정,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로 진행됐다.

그리고 2월15일 필리핀지회를 회장단 5명이 2.15~19까지 항공고총동창회 필리핀 지회 설립에 따른 지원 방문을 하여 필리핀 다바오시 한인회장 초대 지회장으로 취임한 (7기 맹봉호) 지회장과 필리핀지회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공군전공상유공자회, 2024년도 정기총회



공군전공상유공자회(회장 박찬태)는 3월 14일 공군호텔에서 공군본부 전직지원과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도 경과보고와 결산안 그리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 공군사랑회, 20년사 발간

공군사랑회 (회장 서용길)는 지난 3월 공군사랑회 20년사를 발간했다. 책자 주요내용은 공군사랑회 소개, 공군사랑회 홍보활동 화보/가족 사진 및 에세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공군사랑회는 2004년 4월에 창립되었으며, 공군부대 위문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회원자격은 공군현역, 예비역, 그리고 공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이고 회비는 월 3,000원이며 현재, 회원수는 약 1200명이다.//



# 대를 이어 전하자, 위국헌신 태극기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이다. 올해 제72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는 가슴 뜨거운 장면이 펼쳐졌다. 공사1기 출신이며 6·25 전쟁 출격조종사인 이배선 예비역 대령(92)이 졸업생 대표인 강민성 소위의 어거리에 ‘위국헌신 태극기’를 걸어주는 행사가 있었다. 이 태극기는 전쟁중 공사 1기생이 첫번째 출격할 때 2기 후배들이 작전의 성공과 무운을 빌며 조국수호의 염원을 적어 넣어 목에 매어준 태극기다. 이 태극기를 똑같이 재현하여 제 1기생이 72기 후배들을 격려하며 전해준 것이다. 이 감동과 감격의 순간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공군은 1949년 창설당시 아예 전투기가 없었다. 연락기와 훈련기 몇대가 전부였다. 1950년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군이 침략하여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전투기를 지원하였다. 이 대령을 포함 10명의 공군조종사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로 가서 일주일 비행교육을 받고 전투기를 몰고 돌아왔다. 이게 무스타이라고 불리는 F-51이다. 이 전투기는 귀국 즉시 전투에 투입되어 맹활약하였다. 탱크로 밀고내려오는 적의 최선두를 타격하고 적진 깊숙히 날아가 군 시설과 보급기지를 타격하였다. 함께 출격했다가 적의 대공포화에 피격되어 산화한 조종사들도 적지않았다. 이때는 애끓는 마음으로 전우가 탄 전투기가 추락하는 걸 보면서 상공에서 한바퀴 회전하며 명복을 빌고 귀대하였다고 한다. 이런 가슴아픈 일이 생겨도 하루 이를 뒤에는 다시 출격을 반복하였다.

졸업식 축하 리셉션장에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공송배 사관학교장, 이광학 장군 등 역대 공군참모총장, 각국 무관등이 참석하였다. 이영수 참모총장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유지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주역량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배선 대령은 축사를 통해 1기 졸업 당시를 회고하였다. 1952년 1기가 졸업할 때는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졸업생 전원에게 간곡한 당부하였는데 조종사들은 늘 이 훈화를 가슴에 새기고 출격했다고 한다.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제군들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면 온 국민이 노예로 살게됩니다.”

갑자기 요즘 화제가 되고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떠올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세상이 공산독재체제와 자

유민주진영으로 나뉘어질 것을 내다보고 이 6·25전쟁의 실상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북한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김일성 3대 독재체제에서 주민들은 자유를 잃고 노예처럼 살고있지 않은가.

나는 이 귀한 행사에서 이배선 대령과 한 테이블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주최측이 배려한 덕분이다. 나는 6·25전쟁 시기에 태어난 전쟁동이다. 이배선 대령은 내가 한살때 출격을 하신 분이시다. 이 분들의 ‘위국헌신’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이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존경심이 솟아오른다. 전쟁 당시 미국의 원조와 지원 덕분에 유지되던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다. 원로 선배의 말씀이 가슴깊이 파고 든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축복 받은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세계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번영시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나라를 잃을 뻔했던 역사를 잊지말아야 합니다.”

이날 졸업식장에서 이배선 대령이 졸업생 대표에게 위국헌신 태극기를 걸어주었고 졸업생들은 이 대령에게 빨간마후라를 매어드렸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다.

빨간마후라는 대한민국 공군조종사의 상징이다.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였던 김영환 대위가 출격할 때마다 목에 두른 것이 시초였다고 한다. 형수의 빨간 치마자락을 잘라내어 목에 두르고 위국헌신 애국심을 불태운 것이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빨간천을 두르고 출격을 하였다. 그후 조종사들의 상징물이 되어 지금은 공식 지급품이 되었다. 빨간마후라에는 목숨바쳐 나라를 지킨 선배조종사들의 위국헌신 군인정신이 깃들여 있다.

영화주제곡이며 공군군가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빨간마후라 가사에도 선배들의 군인정신이 녹아있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출격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던 조종사들의 피끓는 애국심이 절절히 녹아 있다.

“아가씨야 내마음 믿지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그까짓 부귀영화 무엇에 쓰라. 사나이 일평생을 하늘에 건다”

위국헌신 태극기와 빨간마후라에는 군인들의 애국심이 대를 이어 흐르고 있다. 나라는 군이 지키고 군은 국민이 지켜야 한다. 목숨바쳐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을 기리고 군인을 존중하는 호국보훈 정신이 널리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육에서 TV와 냉장고 등 가전 위주로 출발한 전시회였다. CES는 해를 거듭할 수록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 최대의 종합 전시회로 변모했다. 최근의 CES는 그 해 펼쳐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나침반’으로 일컬어지며, 해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혁신기업이 선정된다.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All Together, All On)’라는 주제로 개최된 CES 2024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행사로 열렸다. 전 세계에서 13만명이 모였고 이번 행사에 미국(1148개)과 중국(1107개)에 이어 한국은 세 번째로 많은 772개 기업이 참가했다. CES 2024의 화두는 ‘클라우드의 시대가 가고 AI를 탑재한 기기(디바이스)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기조연설에서 “AI는 향후 와이파이가 기술처럼 고속 확산될 것”이라며 AI가 개인 모바일·PC·차량 등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곧바로 구현되는 ‘온디바이스AI’의 시대가 올해부터 펼쳐진다고 봤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CEO는 월마트 기조연설에서 월마트 사업에 생성형AI가 접목되고 있으며 “AI는 모든 산업의 가능성을 증폭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일상 곳곳에 AI가 스며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CES 2024에서는 AI 중심의 기술을 소개한 국내 삼성과 LG를 비롯해 처음으로 컨셉트카를 공개한 소니·혼다·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의 드론 배송과 인 홈(In Home) 배송까지 초연결이 화두였다. 또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뤄진 유레카파크 역시 초연결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전시됐다.

CES 2023기조연설은 세계 최대 농기계회사인 ‘디어앤드컴퍼니(Deere, 디어)’의 CEO인 존 메이(John C. May) 회장이 맡았다. ‘존 디어 트랙터’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이며 1837년 창업자 존 디어(John Deere)가 미국의 넓은 초원을 쉽게 경작할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발명하면서 세운 회사다. 디어는 미국계 중장비·농기계 제조회사로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1위를 차지하고 있다.

CES 2024에서는 ‘존디어’ 브랜드 전시장이 유독 대기 줄이 수십m로 긴 줄이 늘어선 전시 부스로 유명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첨단 중장비·농기계를 한 번

타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렸던 것이다. 그러나 긴 줄의 이유는 존디어 로고가 박힌 모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장시간 긴 줄을 서있어도 모자를 받으려면 면접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디어앤드컴퍼니 직원이 “부스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전시물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으면 알맞은 대답을 해야 했다. 후속 질문도 이어졌다. 많은 관람객들이 1분 정도 이어지는 질문에 진땀을 흘리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심지어는 줄을 섰다가도 대답을 잘 못하여 퇴짜를 맞는 관람객들이 다수 있었다. 존디어 모자는 전 세계에서 온 CES 2024 관람객들에게 ‘핫템’(인기품목)으로 인정 받았다. 한국 관람객들에게는 존디어 모자가 19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 모자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했다. 사실 존디어 모자는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약 20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단순한 모자다.

디어가 CES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9년인데 그 당시에도 농기계회사가 CES에 나타나 화제였다. 그 후 이 회사는 CES에 단골처럼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전시하고 시승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많이 받았다. 몇몇 언론에서는 농업계의 테슬라(미국 전기차 업체)를 뜻하는 ‘농슬라’라는 별명으로 디어를 불렀다. 디어는 2023년에는 CES에서 무인 제조 기술을 선보여 혁신상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AI를 적용한 자율주행 농기계를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디어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X의 저궤도 통신망을 사용하여 미국 농지의 30% 가량인 인터넷 서비스 부족지역에서 트랙터, 파종기, 작물 분무기 등을 연결하여 많은 고객이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도 한국 기업들이 CES 2024의 주인공이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체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세계무대에서 돋보였다. CTA에 따르면 행사에 참여한 4,000여 개 기업 중에 313개가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중 134개가 국내 기업이었다. 특히 최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27개 업체 중 8개가 한국 기업이었다.

CES 2024는 우리나라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대기업들의 활약이 크게 돋보였다. CES 2025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를 초연결하는 혁신과 고신뢰의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의 전시장이 될 텐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스타트업체들이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윤희(輪廻)의 이소풍 길, 어쩌다 이리 깊은 인연(因緣)이 되었을까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컬럼니스트, 향군목)



꽃소식이 복상 중이다. ‘입춘(立春)’과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나가고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驚蟄)’도 지나갔다. 더구나 완전한 봄이 온다는 ‘춘분(春分)’도 지나갔으니, 화신(花信)을 알리는 전령사가 적잖다. 머잖아 이 땅에도 화사한 햇살아래 봄꽃 잔치가 벌어지겠지. “새싹” “와우, 움이 텄다.” 그 함성이 바로 봄이자, 우리들의

희망이며, 우리들의 꿈이며, 사랑이며, 그리움이 만들어낸 귀한 만남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생명이다.

어찌 보면 봄은 새로운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에게겐 평등한 시간이 주어지며,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음악이, 그림이, 문학이 그렇게 예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름을 살더라도, 우리가 겨울을 살더라도, 우리는 봄의 계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힘이이다. 결단코 부정할 수 없는

# 미국 최대 가전쇼(CES 2024)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1기, (주) 토브넷회장)

매년 1월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 1월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사람과 돈, 기술이 모여 새로운 트렌드

를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가 열리기 때문이다. CES의 시작은 1967년 뉴